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장혜경¹ · 한수정² · 양남영² · 유명란³ · 고은자⁴ · 김희경⁵ · 임경춘⁶ · 이미라⁷ · 손연정⁸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¹,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²,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³, 전임강사⁴,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⁵,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⁶, 대전보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⁷,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⁸

Health Status and Resilience according to Acculturation Type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Chang, Hae-Kyung¹ · Han, Su-Jeong² · Yang, Nam-Young² · Yoo, Myoung-Ran³ · Ko, Eun-Ja⁴ · Kim, Hee-Kyung⁵ · Lim, Kyung-Choon⁶ · Lee, Mi-Ra⁷ · Son, Youn-Jung⁸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⁴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⁵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⁶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⁷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⁸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health status and reported resilience according to acculturation typ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Methods:** The subjects were 386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ree universities in Ch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standardized questionnaires and SPSS/WIN 15.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test, and ANOVA. **Results:** Subjects reported the following Acculturation type: integration (26.7%), assimilation (28.5%), separation (32.4%), and marginalization (12.4%). The reported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The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igion and economic status. Acculturation ty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level, length of stay, type of residency and economic status working style. The health status and 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cculturation type.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gration of acculturation type is most useful to health status and resilienc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Future studies need to examine acculturation type as coping strategy for foreign students' adaptation.

Key Words: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Resilience, Health statu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외국인 유학

생 수는 77,743명이었으며 그 중 중국 유학생이 60,444명으로 77.1%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4년 10,988명에서 2009년 60,444명으로 약 5.5배 정도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Ministry of Justice of Korea, 2009).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증가된 중국 유학생은

주요어: 중국인, 유학생, 문화적응, 극복력, 건강상태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an, Su-Jeo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685 Gasuwon-dong,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44, FAX: 82-42-545-5326, E-mail: sjhan@konyang.ac.kr

- 본 논문은 대전/충청 지역 성인간호학회 소규모 연구회의 연구임.

- This work was accomplished by Adult Nursing Research Group at Daejeon · Chungnam.

투고일 2010년 8월 16일 / 수정일 2010년 11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3일

단순한 경제적 효과 그 이상으로 중국 유학생을 통해 한중 문화를 상호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Lim, 2009).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 교육, 여가활동의 세계화로 유학생, 외국여행자, 해외 파견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간 접촉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이나 사회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Chung & Yang, 2004).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집단들이 계속적인 직접 접촉한 결과 한쪽이나 양쪽 집단 본래 문화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문화접촉 상황에서 발생하는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Berry, 2005).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문화적응의 이론적 체계와 함께 경험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이 분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 Berry의 2차원 문화적응 모델이다(Kim, Kwon, & Park, 2007). Berry (2005)는 개인적 특성과 반응 양식에 따라 적응유형이 결정된다고 보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두 가지 차원에 의해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및 주변화(marginalization) 4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별로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가 다름을 제시하고 있어 문화적응 유형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Gul & Kolb, 2009; Seo, 2010).

한편 최근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결과에서 극복력(resilience)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Lee, 2007). 극복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을 받으며,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Yoon, Ahnn, & Park, 2008). 극복력은 개인들의 정신건강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Lee, 2007), 문화적응유형 및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Kim et al., 2007; Song & Li, 2008),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그리고 인터넷 이용(Jin, 2010; Seo, 2010; Wang, 2009)의 관계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문화적응유형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포함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olleran & Jung, 2005), 특히 타문화로부터 이주한 유학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과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 등으로 우울, 외로움 등을 포함한 정신적 건강문제는 물론 신체적 건강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Jang, 2009; Song & Li, 2008).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비교적 단기간 머물고 귀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아 중심성이 강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Lim, 2009). 촉진자로서의 간호사의 기능은 개인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극복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므로써 대상자가 보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Im, Oh, Park, Lee, & Lee, 2002).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국내 유입되는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를 알아보아 중국 유학생들의 적응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문화적응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설정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을 분석한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극복력과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극복력,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지역 4년제 대학 세 곳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 400명을 임의 표출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유학생 및 원어민 교수 각 2인의 도움으로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구두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는데 390부가 회수되어 이 중 응답이 미비한 4부를 제외하고 총 386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표본 수 결정은 power analysis에 의하여 효과크기가 중간정도인 .25, 유의수준 .05, 그룹의 수 4, 검정력 .80일 때 180명이 요구되므로(Cohen, 1988) 본 연구의 표본의 수는 충분하였다.

3. 연구도구

1)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Kim 등(2007)이 Berry (2005)의 문화적응 모형에 근거하여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척도 총 4개 문항으로 '이제 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2개 문항과 '새로운 한국문화를 수용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한국문화 수용 척도의 Cronbach's $\alpha = .66$, 중국문화 유지척도의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문화 유지'의 Cronbach's $\alpha = .60$ 이었으며, '한국문화 수용'의 Cronbach's $\alpha = .62$ 이었다. Berry 방식을 따라 문화적응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각 척도를 축으로 하여 총점 평균을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은 경우는 부정적 응답, 높은 경우는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정한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Kim et al., 2007; Song & Li, 2008), 왜도(내 문화 -.05, 타 문화 -.42)와 첨도(내 문화 .10, 타 문화

1.17)로 살펴본 분포 양상이 정상분포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고, 두 측정치간 상관인 $-.132$ ($p = .009$)로 높지 않아 독립적으로 다루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상이면서 중국문화 유지 정도도 평균 이상인 경우, '통합' 집단에,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상이나 중국문화 유지가 평균 이하인 경우 '동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하인 사람으로 중국문화 유지가 평균 이상인 경우는 '분리' 집단으로, 한국문화 수용과 중국문화 유지가 모두 평균 이하인 경우는 '주변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통합' 유형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도 수용하며, '동화' 유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분리' 유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만을 중시하여 타문화와의 접촉을 피하는 유형이고, '주변화' 유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뿐만 아니라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2)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Kim (200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상과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않고 현재 문화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려는 개인 내적 특성, 대처양상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지, 강인성, 의지, 영적, 또래, 지지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본 도구는 총 22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극복력 전체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3)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정신신체증상을 측정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Lawton, Moss, Fulcomer, & Kleban (1982)의 건강상태 자가평가와 Mossey와 Shapiro (1982)의 건강 자가평가 등을 기초로 Lee (2000)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일반적 건강상태, 자신과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 지난 1년간 건강상태 변화,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정신신체증상은 Kim과 Kim (1999)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년의 성격특성 측정도구 중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영역의 10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위는 ‘매우 그렇다’ 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신체 증상 호소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통한 중국인 유학생 1인을 통해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설문지 예상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번역-역 번역 과정은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중국어와 한국어 능력 5급 이상으로 2개 국어 모두에 능통한 이중 언어자가 번역하고 번역한 설문지를 중어중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1인을 통해 감수 받았다.

본 조사를 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국제교류 본부 및 대외협력처의 기관장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인 유학생 2인과 원어민 교수 2인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상자이므로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료수집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설문조사 전 자료수집원들에게 조사내용, 조사방법 그리고 면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유형, 극복력 및 건강상태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는 교차분석,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국내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평균 연령은 22.07 ± 1.95 세였으며, 20~24세가 85.8%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63.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수학과정은 학부 73.1%, 어학연수 19.4% 순이었으며 체류기간은 평균 15.32 ± 11.27 개월로 1년 이상~2년 이하가 31.6%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70.5%, 거주형태는 기숙사가 53.4%, 경제상태는 ‘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58.0%로 가장 많았다. 학업성적은 3.0~4.0 미만이 44.6%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N=3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 or M \pm SD
Age (year)	< 20	21 (5.4)
	20~24	331 (85.8)
	≥ 25	34 (8.8)
		22.07 ± 1.95
Gender	Men	142 (36.8)
	Women	243 (63.0)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282 (73.1)
	Graduate	29 (7.5)
	Language school	75 (19.4)
Length of stay (month)	≤ 6	135 (35.0)
	7~12	47 (12.2)
	13~24	122 (31.6)
	≥ 25	69 (17.9)
		15.32 ± 11.27
Religion	No	272 (70.5)
	Yes	110 (28.5)
Type of residency	Dormitory	206 (53.4)
	Boarding house and etc.	50 (12.9)
	Self-boarding	130 (33.7)
Economic status	High	19 (4.9)
	Middle	123 (31.9)
	Low	224 (58.0)
Grade point average (n=251)	< 3.0	93 (24.1)
	3.0~4.0	172 (44.6)
	> 4.0	57 (14.8)

[†] Except missing data.

2.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유형은 문화적응 척도의 소척도인 ‘한국문화 수용’과 ‘중국문화 유지’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한국문화 수용’의 평균평점은 2.75±0.55이였으며, ‘중국문화 유지’는 평균평점이 2.83±0.58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한 결과 ‘통합’ 집단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26.7%, ‘동화’ 집단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28.5%이었고 ‘분리’ 집단에는 32.4%, ‘주변화’ 집단에는 12.4%이 해당되었다.

3. 국내 중국 유학생의 극복력과 건강상태 정도

극복력 및 건강상태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극복력은 88점 만점에 63.14±8.07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건강상태 역시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는 5점 만점에 3.85±0.76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으나 정신신체증상 정도는 6점 만점에 2.04±0.92점으로 평균 이하를 보였다.

4. 국내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연령, 수학과정, 체류기간, 거주형태, 경제상태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20세 이하는 ‘통합’과 ‘주변화’에서 높았으며, 20~24세는 ‘분리’유형에서 그리고 25세 이상은 ‘통합’과 ‘동화’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학부과정은 ‘분리’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은 ‘동화’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는 ‘통합’유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7~12개월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동화’와 ‘분리’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13~24개월과 25개월 이상 체류한 대상자는 ‘분리’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유형은 기숙사에 있는 경우는 ‘동화’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하숙집은 ‘통합’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자취인 경우는 ‘분리’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상’이라고 응답

한 대상자는 ‘통합’ 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중’과 ‘하’라고 한 경우는 ‘분리’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극복력은 경제상태(F=3.39, p=.03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종교(t=-2.18, p=.030)와 경제상태(F=7.20, p=.001), 그리고 정신신체증상은 종교(t=2.29, p=.022)와 경제상태(F=6.41,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4). 극복력은 ‘통합’ 유형이 ‘분리’와 ‘주변화’ 유형보다 점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동화’ 유형은 ‘주변화’ 유형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F=11.77, p<.001). 지각된 건강상태는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았고, ‘통합’ 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2, p=.010). 정신신체증상은 ‘동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F=3.86, p=.045).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유형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분리’ 유형은 32.4%, ‘동화’유형은 28.5%, ‘통합’ 유형은 26.7%, 그리고 ‘주변화’ 유형은 12.4%로 확인되었다. 앞서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할 때 적용한 한국문화의 수용 축과 중국문화 유지 축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문화 수용 정도

Table 2. Level of Resilience and Health Status

(N=386)

Variables	Min	Max	M±SD	Range
Resilience	23.00	88.00	63.14±8.07	22.00~88.00
Health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2.00	5.00	3.85±0.76	1.00~5.00
Psychosomatic symptoms	1.00	4.09	2.04±0.92	1.00~6.00

Table 3. Difference of Acculturation, Resilience and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86)

Variables	Categories	n	Integration (n=103)		Assimilation (n=110)		Separation (n=125)		Marginalization (n=48)		Resilience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status	
			n (%) [†]	n (%) [†]	n (%) [†]	n (%) [†]	n (%) [†]	n (%) [†]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Age (year)	< 20	21	7 (33.3%)	3 (14.3%)	4 (19.0%)	7 (33.3%)	61.15±16.53	3.88±0.76	2.03±0.88							
	20 ~24	331	86 (26.0%)	97 (29.3%)	115 (34.7%)	33 (10.0%)	62.98±7.26	3.88±0.76	2.03±0.93							
	≥ 25	34	10 (29.4%)	6 (17.6%)	6 (17.6%)	8 (23.5%)	65.81±7.35	3.62±0.72	2.22±0.89							
	χ^2 or F (p)		18.43 (.005)				2.40 (.092)	1.73 (.177)	.68 (.504)							
Gender	Men	142	38 (26.8%)	44 (31.0%)	38 (26.8%)	22 (15.5%)	62.77±10.41	3.92±.76	1.93±0.91							
	Women	243	65 (26.6%)	66 (27.0%)	87 (35.7%)	26 (10.7%)	63.35±6.42	3.82±0.76	2.11±0.92							
	χ^2 or t (p)		4.37 (.224)				-.55 (.582)	1.73 (.177)	.68 (.504)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282	74 (26.2%)	72 (25.5%)	108 (38.3%)	28 (9.7%)	63.48±7.90	3.86±0.76	1.99±0.87							
	Graduate	29	5 (17.2%)	11 (37.9%)	5 (17.2%)	8 (27.6%)	63.09±7.18	3.70±0.75	2.23±1.10							
	Language school	75	24 (32.0%)	27 (36.0%)	12 (16.0%)	12 (16.0%)	61.84±8.95	3.88±0.79	2.19±1.03							
	χ^2 or F (p)		23.90 (.001)				1.06 (.345)	.63 (.532)	2.03 (.132)							
Length of stay (month)	≤ 6	135	50 (37.0%)	41 (30.4%)	29 (21.5%)	15 (11.1%)	63.49±9.21	3.91±0.70	2.01±0.94							
	7 ~ 12	47	5 (10.6%)	18 (38.3%)	18 (38.8%)	6 (12.8%)	61.21±5.22	3.76±0.92	2.11±0.97							
	13~24	122	28 (23.0%)	30 (24.6%)	48 (39.3%)	16 (13.1%)	62.88±7.66	3.92±0.79	2.05±0.91							
	≥ 25	69	18 (26.1%)	15 (21.7%)	28 (40.6%)	8 (11.6%)	64.42±8.30	3.76±0.73	1.91±0.80							
	χ^2 or F (p)		22.73 (.007)				1.56 (.197)	1.11 (.345)	.49 (.686)							
Religion	No	272	25 (22.7%)	32 (29.1%)	36 (32.7%)	17 (15.5%)	62.74±7.91	3.92±0.75	2.22±0.98							
	Yes	110	78 (28.7%)	78 (28.7%)	88 (32.4%)	28 (10.3%)	64.39±8.42	3.73±0.75	1.97±0.90							
	χ^2 or t (p)		2.80 (.422)				1.67 (.094)	-2.18 (.030)	2.29 (.022)							
Type of residency	Dormitory	206	57 (27.7%)	63 (30.6%)	60 (29.1%)	26 (12.6%)	63.06±8.67	3.84±0.77	2.09±0.97							
	Boarding house and etc.	50	21 (42.0%)	7 (14.0%)	14 (28.0%)	8 (16.0%)	63.25±9.30	3.99±0.84	2.19±0.82							
	Self-boarding	130	25 (19.2%)	40 (30.8%)	51 (39.2%)	14 (10.8%)	63.23±8.44	3.82±0.72	1.91±0.88							
	χ^2 or F (p)		15.07 (.020)				.02 (.980)	.87 (.420)	2.27 (.104)							
Economic status	High	19	11 (57.9%)	6 (31.6%)	-	2 (10.5%)	67.77±8.62	4.42±0.67	1.54±0.69							
	Middle	123	28 (22.8%)	35 (28.5%)	46 (37.4%)	14 (11.4%)	62.47±7.52	3.72±0.74	2.25±1.00							
	Low	224	59 (26.3%)	63 (28.1%)	76 (33.9%)	26 (11.6%)	63.24±8.11	3.88±0.77	1.98±0.89							
	χ^2 or F (p)		14.68 (.023)				3.39 (.035)	7.20 (.001)	6.41 (.002)							
Grade point average (n=251)	< 3.0	93	22 (23.7%)	26 (28.0%)	33 (35.5%)	12 (12.9%)	62.76±8.19	3.76±0.65	2.20±1.01							
	3.0~4.0	172	45 (26.2%)	42 (24.4%)	70 (40.7%)	15 (8.7%)	63.13±7.47	3.93±0.75	2.02±0.86							
	> 4.0	57	21 (36.8%)	21 (36.8%)	10 (17.5%)	5 (8.8%)	65.67±6.91	3.70±0.81	1.97±0.87							
	χ^2 or F (p)		12.53 (.051)				2.73 (.067)	2.93 (.055)	1.52 (.219)							

[†]Except missing data.

Table 4. ANOVA on Acculturation Types

(N=386)

Variables	Acculturation types				df	F (p)	Scheffe
	Integration ^a	Assimilation ^b	Separation ^c	Marginalization ^d			
	M±SD	M±SD	M±SD	M±SD			
Resilience	66.03±7.91	64.58±7.81	61.24±5.66	58.35±11.17	3	11.77 ($<.001$)	a > c, d b > d
Perceived health status	4.01±0.76	3.88±0.68	3.76±0.80	3.69±0.83	3	2.72 (.010)	
Psychosomatic symptoms	2.00±0.89	1.83±0.89	2.18±0.96	2.24±0.90	3	3.86 (.045)	b > d

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통합’과 ‘동화’ 유형에 속한 유학생들이 한국문화 수용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분리’와 ‘주변화’ 유형에 속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한국문화도 수용하고 중국인으로서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하는 ‘통합’ 유형과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한국문화 수용을 더 추구하는 ‘동화’ 유형이 ‘분리’와 ‘주변화’ 유형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Wang (2009)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 초기 심리적응에 대해 연구한 Song과 Li (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통합’과 ‘주변화’ 유형이 ‘동화’나 ‘분리’ 유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문화 중 하나만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학생이 의도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유형에 대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문화접촉을 통해 적응과정을 겪는 유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응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국에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종교와 학업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수학과정, 체류기간, 거주형태 및 경제상태에 따라 문화적응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 중인 학생이 ‘분리’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중인 학생은 ‘동화’유형이 가장 많았다. 중국 유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에 대해 연구한 Wang (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단지 한국어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유형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적응에 대해 살펴본 Seo (2010)의 연구에서는 유학목적에 따른 문화적응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온 유학생들은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모두 잘 적응하는 ‘통합’ 적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반면 학위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자국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에 관심이 없는 ‘주변화’ 적응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목적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체류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는 ‘통합’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다른 기간보다 ‘통합’ 유형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7~12개월 이하로 체류한 유학생은 ‘동화’와 ‘분리’유형이 많았고, 13개월 이상으로 늘어날수록 ‘분리’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유학생이 7개월 이상인 장기유학생보다 대학환경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Seo (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ong과 Li (2008)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초기 심리적응에 관계를 검정한 결과 ‘동화’유형의 적응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유학초기 대상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보다는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실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적응의 변화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상태가 ‘상’인 유학생들의

극복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극복력에 관한 Park, J. R. (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극복력이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Shin, Lee, & Lee, 2005), 가정소득이 높은 학생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능동적인 조절양식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Park, J. R., 2009)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보면 중국 유학생들도 제한된 경제상태 ‘하’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학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각된 건강상태와 정신신체증상 모두 연령, 성별, 체류목적, 체류기간, 거주지, 학업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지역 국내 대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Cho (200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건강행위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그 실천율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연구한 Park, Y. S. (2009)의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는 학년, 성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즉, 중국 유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영위하는 데에 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 유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유학생들의 경제상태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적 안정을 찾아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라는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통합’ 유형이 ‘분리’와 ‘주변화’ 유형보다 더 높았으며, ‘동화’ 유형은 ‘주변화’ 유형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극히 드물어 비교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극복력을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Lee, 2007), 이를 고려하여 극복력이 높은 문화적응유형을 찾아낸다면 그 유형의 문화적응이 되도록 중국 유학생들에게 맞는 문화적응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극복력에 대한 집단의 특성을 연구한 Ahn과 Kim (2007)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극복력이 뛰어나

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과제지향 대처전략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감정지향 대처전략을 덜 사용하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이었다고 보고하면서 과제지향 대처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극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화적응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극복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서 더 나아가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합’ 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신신체증상은 ‘동화’ 유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Jang, Kim, Chiriboga와 King-Kallimanis (2007)은 미국이민 노인 472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분리’ 유형과 비교하여 ‘통합’ 유형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Gul과 Kolb (2009)는 독일 거주 터키 청소년 220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정신과적 유형률을 조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심리사회적 부적응 때문에 야기되는 우울은 ‘통합’ 적응이 낮은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2009)은 78명의 미국이민 한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우울 증상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통합’ 적응인 경우는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고, ‘주변화’ 적응인 경우는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합’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신체건강상태가 좋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나쁘게 나타난 것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 유학생들은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극복력과 건강상태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합’ 유형에서 극복력과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도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국 유학생들의 신체·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문화적응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고,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

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분리’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동화’와 ‘통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변화’ 유형이 가장 낮게 분포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수학과정, 체류기간, 주거형태 및 경제상태에 따라 문화적응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통합’ 유형이 ‘분리’와 ‘주변화’ 유형보다 더 높았으며, ‘동화’ 유형은 ‘주변화’ 유형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합’ 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신신체증상은 ‘동화’ 유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통합’ 유형이 되도록 도와주어 극복력을 높이고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추후 문화적응유형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포괄적인 건강상태 조사 및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한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적응과 극복력,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과, 간호학 연구의 영역확대를 꾀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Ahn, D. H., & Kim, J. (2007).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compet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1), 47-67.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Cho, M. K.,(2001). The health status and the health behavior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for Student Life, 22*, 277-292.
- Chung, J. K., & Yang, K. M. (2004). Recent developments in acculturation theories. *Korean Journal Psychology, 23*(1), 101-13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ul, V., & Kolb, S. (2009). Acculturation, bicultural identity and psychiatric morbidity in young Turkish patients in Germany. *Turkish Journal of Psychiatry, 20*(2), 138-143.
- Holleran, L. K., & Jung, S. (2005). Acculturative stress, violence, and resilience in the lives of Mexican American youth. *Stress, Trauma and Crisis: An International Journal, 8*, 107-130.
- Im, S. B., Oh, H. Y., Park, Y. I., Lee, E. H., & Lee, S. (2002). Analytical review of resilience for preventive 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3), 304-315.
- Jang, J. R. (2009).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elf-control and emotion o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 Jang, Y., Kim, G., Chiriboga, D., & King-Kallimanis, B. (2007). A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for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Studies, 21*, 267-275.
- Jin, A. K. (2010). *Effects of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acculturation pattern on acculturation stress in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Kim, E. (2009).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attitud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American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0*, 98-103.
- Kim, H. S., & Kim, H. S. (1999). Development of instrument for measuring personality factor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1), 190-201.
- Kim, K. H., Kwon, S. J., & Park, E. J. (2007). Role of university and community on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18*, 1-25.
- Kim, Y. N. (2008). *A Quanti-qualitative study on resilience which affects the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Lawton, M. D., Moss, M., Fulcomer, M., & Kleban, M. H. (1982). A research and service oriented multilevel assessment. *Journal of Gerontology, 37*(1), 91-99.
- Lee, H. R. (2007). *Adversity and adapt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P. S. (2000). Correlational study among healthy life style, self-esteem, perceived health status in Korean elderly. *Korea University Nursing Journal, 2*, 5-14.
- Lim, C. H. (2009). Acculturative stress and adjustment elements

-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1), 93-112.
- Ministry of Justice of Korea(2009). *Student exchange & study abroad in Korea*. <http://www.moj.go.kr>
- Mossey, J., & Shapiro, E. (1982). Self-rated health: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7, 800-808.
- Park, J. R. (2009). *Relationship of adolescents' resilience with the perception of adversity and protectiv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Park, Y. S. (2009).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some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Kongju.
- Seo, S. J. (2010).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type and adaptation to college with respect to their characterist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Shin, J. Y., Lee, Y. A., & Lee, K. H. (2005). The effects of life meaning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Counselling Psychotherapy*, 17(4), 1035-1057.
- Song, W., & Li, N. (2008). Chinese student's early psychologic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ir acculturation typ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 159-173.
- Wang, F. F. (2009). *A study on the use of the internet depending on chinese students' acculturation type o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Yoon, S. A., Ahn, G. Y. R., & Park, Y. S. (2008). The defense mechanism and coping strategy characteristics of resiliently adaptive female college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4), 961-975.